

##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최 금 해\*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 이상 된 기혼 조선족 여성 1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개방코딩에서는 74개의 개념과 21개의 하위범주,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의 경우 패러다임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서의 인과적 조건은 ‘국제결혼 선택함’이었고, 중심현상은 ‘스트레스 경험’이었다.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문화적 차이’, ‘정체성 혼란’, ‘경제적 기대와 현실 간 차이’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자기실현 욕구’, ‘자신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작용/상호작용전략을 촉진하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을 작용하는 중재적 조건은 ‘자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함’으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는 한국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범주의 속성과 차원뿐만 아니라 결혼계기, 경제적 지위,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학력 및 시댁식구들과의 관계 등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된 객관적인 조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속노력형’, ‘불가피순응형’, ‘긍정적인내향’, ‘변화시도형’과 ‘유동형’ 등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에게 유형別に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제결혼, 한국남성, 조선족 여성, 한국생활 적응, 질적 연구, 근거이론

\*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여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건수가 2001년 1만 6건, 2002년 1만 1천 17건, 2003년 1만 9천 214건 등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3.1.6). 이 중 한·중 국제결혼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결혼 신청 건수는 2000년 5,118건에서 2001년 7,815건, 2002년에는 8,048건<sup>1)</sup>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계청의 2003년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중국인 여성의 수는 13,373명으로 1992년의 429명에 비해 30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03). 보건복지부 2005년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에 약 10,000명 미만, 2004년 16,000명, 2005년 6월까지 약 8,000명의 중국 조선족 여성이 결혼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05).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므로 한국정부의 지방자치 군청에서도 국제결혼에 발 벗고 나섰다(중앙일보, 2005년 3월 31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더 이상 예외 상황으로 외면하는 현상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일상적인 사회현상으로 다뤄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Ben-David & Lavee(1994)는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려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적응과정이 그들의 고유한 사회문화와 새로운 사회문화 사이의 충돌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처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진(1999)은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같은 결혼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성지혜(1996)는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남성들의 가부장적 생각과 그 결과 나타나는 억압된 행태를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홍기혜(2000)는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적응의 방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도, 파괴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족 여성들은 정착하기 위해 한국에 온다. 그러나 완전히 한국에

---

1) [http://www.asianwed.co.kr/process\\_C01.asp](http://www.asianwed.co.kr/process_C01.asp).

정착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화시대에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한국의 여성 및 가족구조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더 이상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다. 다가오는 민족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조선족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겪고 있는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이해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며, 새로운 가족복지의 모델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조선족 여성들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가족복지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적응을 조선족사회와 한국사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민자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문화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뿐 이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적응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지, 이들의 적응유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회복지영역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은 현장에 기초한 경험적·귀납적 이론이나 개념의 개발에 등한시 해 왔던 점(김인숙·우국희, 2002)을 반성해야 한다고 할 때,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인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적응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적응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 서술, 분석하여 문화변용 속에서의 다양한 적응유형을 도출하여 이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는 데 연구의

목적들을 두고 있다. 이런 연구는 국제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생활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적응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에 필요한 이론을 도출하고,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조선족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들이 필요한 구체적인 욕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조선족 여성들에게 적절한 적응모델을 구축하여 이들에게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상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1)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의 적응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은 어떠한가?
- 3)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

## II. 선행연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는 2000년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김정민(2002)은 한·일 국제결혼 가정에서 사용되는 ‘호칭’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었고, 니이야 도시유키(2000), 이규삼(2000), 이현옥(2004), 인봉숙(2002) 등은 한·일 국제결혼의 생활 적응의 갈등, 문제점 및 부부의 생활만족 등을 다루고 있고 안현정(2003), 윤형숙(2003)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의 생활만족에 관해 다루면서 한국의 가부장

적인 가족질서를 지적하고 필리핀 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상담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체제와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국적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윤연숙(2003), 임경혜(2004), 정영덕(2004) 등은 국제 결혼가정을 주제로 하여 문화적응 어려움과 삶의 만족 및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에 관한 연구도 1999년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한·중 국제결혼 부부간의 갈등 및 결혼생활 실태 파악에만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조선족 여성들의 생활체험보다는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김숙자, 강유진(1999)의 연구에서는 섭외혼인<sup>2)</sup>관련 법적문제를 법원의 실제 판례에 대한 분석, 혼인의 성립 및 혼인의 효력, 부모와 자녀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에 대한 한·중 양국의 법률(민법, 호적법, 섭외사법 등)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원에서 나타난 섭외혼인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가족복지 향상을 위한 가족법의 계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관계에서 조선족 아내들은 시부모와의 관계(42.8%)와 혼인생활상에서 ‘생활습성, 언어장벽 등 문화적 차이(29.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생활관계에서 조선족 아내들은 시부모와의 관계(42.8%)와 혼인생활상에서 ‘생활습성, 언어장벽 등 문화적 차이(29.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진(1999)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서 한중결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밝히면서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의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강해순(1999)은 주로 양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해 조선족 여성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홍기혜(2000)는 실태조사와 면담방식을 통해 국제결혼을 한 조선족 여성들의 결혼생활체험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어려움과 문제점 및 욕구를 어느 정도 이

---

2) 중국 조선족들은 국제결혼을 섭외혼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현재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남성과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을 지칭하는 말이다(홍기혜, 2000).

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여겨지지만 여성학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가부장적 제도하의 조선족 여성의 열악함과 무력감 및 부정적인 출국목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강조했었고 아직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뒤에 숨어있는 지지체계의 존재 및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기술 및 방법,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신영화(2002)는 상담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편 간의 가족치료상담 개입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제시하였고, 이현정(2000)은 중국 조선족들은 경제적·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한국취업”을 선택하게 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취업과 한국인이 보여주는 차별과 멸시로 조선족이 스스로를 한국인과 동일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게 만든다고 하면서 조선족들은 종족성을 새롭게 재구성한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외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설동훈(1999)은 한국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에서 조선족들은 “자신을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느낀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동포’가 아니라 ‘똥포’”로 대접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것은 조선족 노동자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한국 노동현실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이현정(2001)은 정체성과 관련해서 한국 체류 조선족 노동자들은 종족정체성을 형성하며 종족정체성은 중국의 정치학과는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고 노고운(2001)은 한국 체류 조선족 노동자들은 삶에 대해 적극적이고 한국생활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면서 조선족들은 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하고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는 조선족 혹은 국제결혼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어려움과 결혼생활 문제점을 다루고 있었지만 조선족 여성들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은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런 연구에서는 다양한 적응유형의 한·중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중 국제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에 대해 한국사회의 일괄적인 편견, 차별과 부정적인 부분과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영역에서 한·중 국제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의 다양한 적응유형을 살펴보고 특히 이들 적응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경험에 대한 조선족 여성들의 이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은 세계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한·중 국제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에 대해 이해를 가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의 한 국민으로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조선족 개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족체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III. 연구방법

#### 1. 근거이론 방법

근거이론 방법은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어진 하나의 근거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근거이론의 장점 중 하나는 행동의 패턴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기존의 국제결혼 관련 연구에서는 단순히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문화 적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거나 양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실태에 대한 파악에만 그치고 있었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외국인 여성들은 실제로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와 욕구는 무엇인지, 특히 이들은 한국생활 적응에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에 대한 파악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개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이론 방법의 사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sup>3)</sup>방법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 이상인 조선족 여성 1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의 두 가지 원리는 적절성과 충분성이다. 적절성이란 연구에서 이론적 필수 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성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들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포화상태)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신경림 역, 1997). 표본추출의 적절성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 이상인 조선족 여성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함으로써 확보하였고,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2004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총 1년 9개월 동안 본 연구자는 총 17명의 국제결혼을 한 조선족 여성과 1:1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개인별로 진행된 면담 횟수는 최소 3회에서 최대 7회까지였으며 면담은 회기 당 2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통해 얻은 내용을 주된 자료로 삼고, 이외에 연구 참여자가 가정 혹은 직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연구자의 관찰 내용 및 국제결혼을 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경험을 저술한 단행본, 국제결혼 관련 TV 출연내용을 담은 비디오자료, 국제결혼정보사, 국제결혼인권연대 및 자조모임의 인터넷 카페 등 비학술적 문헌이나 글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연구자가 인식한 연구 참여자의 감정, 태도, 경험, 반응 등을 현장에서 메모한 현장노트 역시 자료로 함께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에 따라 면담 흐름표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면담 흐름표의 내용은 연구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국

---

3)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이론을 가장 잘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이론적으로 선택된다.

제결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한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욕구를 경험하고 있었는지 및 이런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을 말하며, 자료의 의미를 지각하고,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연구자료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자료의 단어 나 구, 문장을 분석하며, 나온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것 등이 있다. 이론적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통해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면담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원하는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커피숍, 집, 사무실 등)로 정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는 질문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녹음기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면담을 하는 동안에는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면담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면담 후에는 현장기록 노트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 면담의 주요 내용 등이 들어있는 면담상황에 대한 기록과 본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사항과 느낀 점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면담 즉시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했다. 면담의 시작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임신 몇 개월이죠? 많이 힘드시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날씨 좋은 날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등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면담 당일에 면담 사례에 대한 완전축어록(transcript)을 작성하였다.

&lt;표 1&gt; 면담 흐름표

연구문제	주요 질문	하위 질문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결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가?	1. 어떻게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2. 가족/주변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가? 3. 출국수속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적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1. 적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2. 초기 생활적응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는가? 특히 적응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시댁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는가? 4.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는가? 5. 주변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는가? 6. 일과 관련된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는가?
	적응과정에서 욕구와 미래에 대한 포부는 무엇인가?	1. 현실에 대한 고민은 무엇인가? 2.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3. 미래에 대한 포부는 무엇인가?
	적응과정에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1. 적응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2.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가? 3.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혹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근거이론을 적용할 때 과정은 크게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세 단계를 순으로 진행한다.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여 이름을 붙이고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 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으로부터 출현한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결시키며, 속성과 차원 수준에서 밀도 있고 잘 개발된 범주를 형성하여 범주들간의 관계를 밝혀낸다. 그리고 선택코딩은 범주를 통합하고 논리적 연결을 시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선택코딩에서는 적응과 관련된 유형을 분류하였다. 근거이론에서 분석을 위해 제시된 패러다임모형에서 연구자는 관심사의 중심현상이 되는 한 범주를 확인하

고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조건, 현상을 설명하는 전략들, 전략을 형성하는 맥락과 중재조건들, 전략을 수행한 결과들을 연결한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생활한지 1년 이상인 조선족 여성 17명이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1세에서 44세까지였고,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평균 7세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8명, 인천 4명, 충남 1명, 광주 1명, 강원도 1명, 경기도 1명, 수원 1명이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전업주부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중국어 강사와 같은 비정규직 직종이나 국제결혼 관련 개인 사업을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상황

사 례	나 이	배우자 나이	한국 체류 기간	중국에서 다닌 학교	재혼 경험	한국 여성관련 기관에서 한국문화체험경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현재 하고 있는 일	거주지
1	30	30	7년	한족학교	무	무	중상 <sup>4)</sup>	중국어 강사	경기도
2	30	34	3년	조선족학교	무	무	상	전업주부	인천
3	34	41	4년	조선족학교	유	유	상	전업주부	서울
4	31	38	10년	한족학교	무	유	상	국제결혼사업	충남
5	34	44	11년	한족학교	무	유	상	대학원생	인천
6	30	37	3년	한족학교	무	무	하	식당일	서울
7	37	43	14년	조선족학교	무	무	상	개인사업(의류)	서울
8	29	36	3년	조선족학교	무	무	중상	식당일, 국제결혼사업	서울
9	21	38	2년	한족학교	무	무	하	전업주부	인천
10	24	31	2년	한족학교	무	유	하	전업주부	인천
11	33	39	9년	조선족학교	무	무	상	중국어 강사	서울
12	29	35	6년	한족학교	무	무	중	전업주부	경기도
13	36	44	3년	한족학교	유	무	중상	전업주부	수원
14	29	37	5년	조선족학교	무	무	상	개인사업	서울
15	39	44	15년	한족학교	무	유	중상	개인사업(노래방)	강원도
16	44	50	2년	한족학교	유	무	하	전업주부	광주
17	28	35	6년	조선족학교	무	유	상	중국어 강사	서울

## 2. 적응의 의미분석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의미를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된 사회적 배경, 한국생활에서의 주요 경험, 가족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 전반적인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 적응 노력과 경험, 적응 노력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된 사회적 배경

본 연구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서 ‘결혼동기’, ‘만난 경위’와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등을 하위범주로 정리하였고, 이런 하위범주를 ‘국제결혼 선택함’이라는 범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선택함’의 범주는 조선족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본질에 대한 생각과 결혼 현실간에 일치되어 있는지 상충되어 있는지의 차원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경험에 큰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 ‘정(情)/사랑’, ‘결혼적령기 지남’, ‘농촌생활에서 벗어남’, ‘이혼경험’, ‘부모의 고향에 가고 싶어함’, ‘경제적인 기대/동경심’, ‘무지한 결정’,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 등의 개념을 ‘결혼동기’라는 하위범주로, ‘같은 직업’, ‘중매’, ‘이웃/친지/교수 소개’ 등 개념을 ‘만난 경위’로, ‘타인의 반대’, ‘부모의 의견에 순종’, ‘운명/인연’, ‘모험’, ‘남녀 불평등관계의 시작을 인식함’ 등의 개념을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이란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이런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또한 근거이론 패러다임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에 해당된다.

### (1) 정(情)/사랑

저는 우리 신랑을 사랑해서 이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남편이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저한테 계속 한국에 오라고 했을 때 저는 안 왔죠. 그 당시는

- 
- 4) ‘상’은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전달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단어와 영어 단어 심지어 전문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정도. ‘중상’은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전달하고, 자주 쓰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정도. ‘중’은 의사소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자기의 의사를 표현·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어로 연구자와 대화를 하는 정도. ‘하’는 간단한 한국어만 이해하고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와의 인터뷰하는 동안 주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정도.

이 사람밖에 없더라구요. (사례11)

## (2) 결혼적령기 지남

나이라도 점점 많아져 가고 눈도 높아져 가면서 결혼적령기에 중국 현지에서 마땅한 상대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례5)

## (3) 농촌생활에서 벗어남

농촌에서도 할 일도 없고 중학교만 다니고 그냥 집에서 놀았으니까 한국에 시집와도 별로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농촌에서 살기 싫었어요...사실 중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사례9)

## (4) 이혼경험

중국에서 결혼을 한 번 했어요. 한족(중국사람)이거든요....지금은 내가 생활했던 그 곳을 떠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돌아가기도 싫고 돌아가지도 않을 거 같아요. (사례13)

## (5) 부모의 고향에 가고 싶어함

사실 저의 친정 엄마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호적에 엄마 이름 있어요. 그래서 비록 중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저는 엄마의 고향은 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수교 후에 엄마가 한국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때 저도 오고 싶었어요. 엄마의 고향이니까...(사례7)

## (6) 경제적인 기대/동경심

그 때 92년도이니까 중국에 들어온 한국기업은 처음이잖아요. 수교 전이니까 그리고 월급도 꽤 많이 주고...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사례4)

## (7) 무지한 결정

나는 한국에 대해 무지했어요...한국에 오기 전까지 내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란 고작 3가지뿐이었어요. 한국은 종교천국이고 스포츠에 강한 나라임

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 여성이 없는 나라입니다...(사례5)

#### (8)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때까지라도 나는 서울대는 어떤 학교인지도 몰랐고 단지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자상한 모습에 너무나 큰 기대와 꿈을 가졌어요...(사례5)

#### (9) 같은 직업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대련에 있을 때 저의 신랑은 한국 본사에 있었어요. 그 때 우연히 출장 나와 알게 되어서 그냥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면서 계속 만나게 되었어요. (사례2)

#### (10) 중매

저희들은 맞선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심양에서 만났는데 심양에 한국 국제결혼 업체가 있어요. 남편이 그쪽에 가서 그 업체 소개로 저랑 만나게 되었어요. (사례8)

#### (11) 이웃/친지/교수 소개

그 언니가 시집오고 나서 언니 남편 친구가 혹시 자기한테도 조선족 여자를 소개해줄 수 없냐고 해서 언니가 저를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 보더라구요. (사례9)

#### (12) 타인의 반대

우리 엄마는 결혼식 할 때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사례1)

#### (13) 부모의 의견에 순종

어머니는 ‘같은 민족’ 사람을 원하셨어요. 홀로 사신 어머니께 효도하는 방법은 바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사례5)

#### (14) 운명/인연

근데 이상하게 그 오빠한테 정이 안 가더라구요. 정말 다 인연이 있는가봐요. 우리 신랑과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사례1)

#### (15) 모험

한국 남자들은 한국에서 결혼 상대를 찾기 힘들니까 그쪽(중국) 사람과 결혼하잖아요...뭐라고 할까 좀 모자란 사람들이 보통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사례3)

#### (16) 남녀 불평등관계의 시작을 인식함

본인이 OK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OK하면서...한국 남자는 한 명인데 중국 여자들은 여러 명이 와서 그 남자 한분을 만나는 게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사례3)

### 2)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

본 연구에서 조선족 여성들은 주로 가족관계에서 주로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또한 근거이론 패러다임모형에서 중심현상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중심현상은 또한 정도에 따라 큼, 작음의 차이를 나타났다.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의 주요 경험에서는 ‘무시’, ‘신뢰의 부재’, ‘차별/편견’, ‘간섭/통제’, ‘인식의 차이’, ‘성격/나이 차이’, ‘폭력’ 등의 개념들이 나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과도한 관심과 지지로 인해 자신은 ‘무능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될 때가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한 연구참여자가 있어서 본 연구의 새로운 적응유형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 (1) 무시

저녁에 돌아온 남편에게 하소연하니 남편 왈: 이것이 바로 한국여성이 되는 과정이라나...남편은 무조건 시어머니 편이거든요...뭐 한국여성은 다 이렇게 산다는 둥...(사례5)

## (2) 신뢰의 부재

왜 아이를 안 가지냐고 맨날 물어봐요. 그때까지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혹시 내가 도망가지 않을까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출근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전화 오는 거예요. (사례1)

## (3) 차별/편견

하루 종일 제사상을 준비했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리냐 빨리 빨리 해라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되요. 동서는 늦게 와서 시어머니한테 봉투를 하나 드리더니 시어머니는 즉시 직장일 많이 힘들 텐데 좀 쉬어라고 하는 거 있죠? (사례11)

## (4) 간섭/통제

주방은 자기가 차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전을 부치고 있으면 ‘아, 형님,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비웃고 그래요. 날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요...(사례4)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까지 저보다 앞서 생각해서 다 해주니까요. 그런데 너무 관심해준다고 할까요, 저는 오히려 제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될 때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사례3)

## (5) 인식의 차이

우리 시어머님은 처음에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다며 버릇없다고...그게 말대꾸 아니죠,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참아야죠...(사례1)

## (6) 성격/나이 차이

저의 남편은 둥굴둥굴하고 활발한 성격이고 저는 단적인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아니면 아니더라는 성격이거든요. 성격차이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사례6)

## (7) 폭력

(남편이)손은 처음에 한번 댔어요. 진짜 그 때는 서로 정말 열을 받아가지고...근데 그 후부터 성질이 나면 서로 말로 해결해요...기분이 안 좋죠. 정말 이혼할 생각도 했었어요. (사례6)

### 3) 전반적인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조선족들이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는 주로 문화적 차이, 정체성 혼란과 경제적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또한 근거이론 패러다임모형의 맥락적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고, 정도와 경험의 속성에 따라 크고 작음의 차이의 정도가 나타났다. 한국생활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념들이 나왔다.

#### (1) 언어에 대한 재학습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화를 기다렸어요...나중에 알았었는데 나중에 전화드리겠다는 말은 탈락되었다는 말이라요...중국에서 나중에 전화주겠다고 하면 꼭 전화를 주잖아요. 그리고 합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그래서 한국어를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사례14)

#### (2) 음주문화 차이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와요. 야근하면 술 마시고 들어오지 친구 만나면 술 마시고 들어오지 무슨 술자리가 그렇게도 많은지 정말 한국의 음주문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사례13)

#### (3) 음식문화 차이

여기서는 거의 기름으로 볶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김치를 좋아하는데 저는 집에서는 김치를 전혀 안 먹는데 여기와서 매일마다 김치를 먹자니까 힘든거죠. (사례3)

#### (4) 가족문화 차이

여기선 뭐가 다르냐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지 않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요. 중국보다 휴일은 가족분위기가 더 강해요. (사례3)

#### (5) 부부간의 의사소통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남편과 같이 보내는 시간 거의 없어요. 대화도 거의 하지 못하죠. 아이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물어볼 시간도 없고. 집에 오면 아이들은 다 자고 있으니까요. (사례4)

#### (6) 제사문화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제사였어요. 중국에는 3년 지나면 그런 게 없잖아요...우리 집은 일 년에 다섯 번을 해요. 명절에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례3)

#### (7) 여성문화

한국 여자 만나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씹기 좋아하는지 정말 이해 안 돼요. 여자들이 같이 있으면 꼭 한 사람을 씹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하고 생각만 하잖아요...(사례11)

#### (8) 높은 물가에 놀람

30만 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중국에서 80만 원이면 6개월가량의 생활비는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돼요. 정말 너무 놀랐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사례1)

#### (9) 기대에 대한 실망/당혹/혼동

정말 산골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산골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남편 따라 집에 가 보니 주변에는 아무 상점도 없고 산과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녁에 눈도 감지 못할 정도였어요. (사례4)

### (10) 정체성 확립

다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안 바꾼다고. 나중에 중국이 발전되면 중국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데 국적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례14)

### (11) 정체성의 갈등/의문

국적에 대해 별로 큰 신경은 쓰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든 없든 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누구인지 밝힐 필요가 있겠어요? (사례8)

#### 4) 적응 노력과 경험

본 연구에서 조선족 여성들은 ‘자기실현 요구’를 가지거나, ‘자신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또한 근거이론 패러다임모형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분류하였고 이 두 범주는 정도와 강도의 속성에 따라 강함과 약함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생활경험에서 취하는 행동에서는 ‘가족식구들의 인정을 받음’, ‘이웃/친지들의 인정을 받음’, ‘부부관계에 신념/믿음을 가짐’, ‘한국결혼을 잘 했다고 생각함’, ‘가정의 경제권을 소유함’, ‘지속적인 발전에 자신감을 가짐’, ‘지속적인 자기발전에 노력함’, ‘경제적 목표 세움’, ‘자녀를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함’, ‘이타심을 발현함’ 등의 개념들이 나왔다.

#### (1) 가족식구들의 인정을 받음

지난번에 시부모님을 뵈었는데 시아버지는 그래도 막내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농장과 집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찬성하시는 거예요. (사례4)

#### (2) 이웃/친지들의 인정을 받음

저희들이 이제 재미있게 살고 있으니까 시댁 시아버님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들 장가 못 갔는데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사례3)

### (3) 부부관계에 신념/믿음을 가짐

저희들은 꼭 잘 살 거예요. 지금처럼. 저는 믿거든요. 저는 잘 살 수 있는 자신감 있어요. 남편은 저를 믿고 저도 남편을 의지하고 뒤에서 많이 지지해 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사례14)

### (4) 한국결혼을 잘 했다고 생각함

결혼 열 번 다시 하라고 해도 우리 신랑 택할 것 같아요. 사업에는 모르겠지만 결혼 하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랑 자랑 한 것은 아닌 데요 정말 우리 신랑 같은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사례14)

### (5) 가정의 경제권을 소유함

남편은 매달 월급을 다 저한테 줘요. 처음부터 그렇게 줬어요...저를 믿고 저한테 돈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특히 중국에서 온 저한테 돈을 다 맡긴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사례16)

### (6) 지속적인 발전에 자신감을 가짐

저도 자격증 몇 개 따려고 해요. 기본으로 운전, 요리, 컴퓨터...기본인 것 같아요. 공부는 조금 했지만 그래도 자격증 따야 어디에 가든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12)

### (7) 지속적인 자기발전에 노력함

저는 지금 노래방을 하면서 중국어 과외도 하고 남편 도와서 건강원 일도 하고 있지요, 곧 다른 일을 지금 구상 중이에요. 다음 학기에 대학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봉사도 열심히 다니고 싶고요, 우리 애들도 더 잘 보살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웠으면 해요. (사례15)

### (8) 경제적 목표 세움

한국의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예요. 그 정도 되려면 남편 혼자 일해서는 안 되고 저도 일하려고 해요. 같이 돈 벌려고 해요. 여자들

도 돈 벌어야 힘이 있어요. 젊으니까 돈 벌어야죠. (사례2)

### (9) 자녀를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함

저는 꼭 자식을 잘 교육시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여자들의 삶의 성공은 뭐 있겠어요? 자식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성공하면 저도 성공한 거죠. (사례12)

### (10) 이타심을 발현함

저희들은 원래 미국에 갈 생각이었지 계속 한국에 있을 생각은 아니었거든요...제가 지금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기에는 좀 걸려요. (사례6)

#### 5) 적응 노력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한국생활 적응 노력과 경험에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 조선족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대처하는지 부정적으로 대처하는지, 가족, 지역사회와 자조집단 등으로 받은 지지가 많은 지 적은 지에 따라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또한 근거이론 패러다임모형에서 중재적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범주들이 유형, 행위와 경험이란 속성에 따라 긍정과 부정, 적극과 소극 그리고 많음과 적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나온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력부재

교육 관련 여러 곳을 찾아봤지만 대졸 이상은 기본이고 중국에서 취득한 학력에 대해선 모두가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였어요. (사례5)

#### (2) 가족/사회 지지자원 부재

학원 같은 데는 새벽반 저녁반만 있지 낮 시간은 비어 있어요. 근데 애를 봐주는 데는 낮 시간에 봐주고 저녁에는 안 봐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옆에 친척도 없으니까 맡길 데가 없잖아요. (사례4)

### (3) 자조집단 자원 부재

사실 저희들도 몇 번 모임을 가졌는데요. 항상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가는 느낌이에요...체계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요. 매번 오면 다 똑 같아요. 만나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끝나요. (사례17)

### (4) 남성중심의 직장 및 사회문화

번역, 통역, 중국 회사와의 연계에 관한 부분 모두 다 과장님이 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는 중국어 번역, 통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14)

### (5) 한국국적 취득하지 못함

좋은 나쁜 건 같이 살아야죠. 제가 국적을 따야 되니까. 아직 국적을 가지지 못했으니까요. 남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해도 참아야죠. 국적이라도 따야 되니까. (사례13)

### (6) 자신의 장점을 인식함

(중국에 대해서)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이 더 그래요. 솔직히 우리는 그들보다 강점이 더 많잖아요. 언어 하나 더 하잖아요. (사례4)

### (7) 자신의 역량을 발견함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으니 그 경험을 취득해서 노력만 하면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어요. (사례15)

### (8) 경제적으로 자립함

국제결혼사업을 하면서 저는 혼자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부터 시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으면서 살 필요 없고 아이들한테도

예쁜 옷도 사줄 수 있고...(사례4)

#### (9)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함

태어난 환경이 다르다고해서 기죽을 것 없고 뭐든지 자기하기 나름이지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다고 봐요. (사례15)

#### (10)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함

한국 사람들이 정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두 번 안 되면 세 번 뭐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이해해 주고 도와주더라고요. (사례12)

#### (11) 권위에 도전함

시아버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남편한테 나가서 살자고 했어요... 지금은 따로 살아요. (사례4)

#### (12) 가족관계 재정의를 함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그래서 동서랑 싸웠어요. 물건도 많이 깨졌죠. 싸운 다음부터 지금은 감히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지 못해요. (사례4)

#### (13) 사회활동에 참여함

이런 환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나는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난 이런 사회활동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답답함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모임까지 가지게 되었다. (사례5)

#### (14) 문제를 회피함

후에야 터득한 일이지만 우리는 함께 뉴스를 보지 않는 것이 제일 평화로운 일이고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사례5)

**(15) 문제를 최소화함**

남편과 싸워봤자 서로 상처만 주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 위해 남편이 틀리게 말하더라도 그냥 “예”하고 들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사례9)

**(16)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수용함**

결혼 후회한 적은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마음먹지만 참 힘들어요. (사례9)

**(17) 부정적인 행동을 취해서 스트레스를 대처함**

우리 남편은 그때도 또 내 편을 들지 않고 동생 편을 든 거예요. 너무 화나서 가출했어요. 밖에서 4일정도 있었어요. 4일정도 있는 동안 정말 섭섭하더라구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사례6)

**(18) 배우자 지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남편이 다 들어주고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다시 저한테 결정권을 줘요.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례12)

**(19) 원가족 지지**

시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니까 돈도 없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사례7)

**(20) 시댁/동서 지지**

지금은 우리 신랑보다 내가 말하면 다 100% 찬성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아들하고 상의하는 것보다 나하고 상의하니까 참 좋더라구요. 이제야 가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례1)

### (21) 자원 활용

교회에서 큰 힘을 얻고 그래요. 제가 출산하고 나서도 교회에서 잘 알고 지냈던 전도사님이랑 집사님들이 옷도 사오시고 그 분들 자녀들이 쓰지 않는 장난감도 가져다주고 참 좋더라고요. (사례12)

### (22) 동네 아줌마들은 정보를 제공함

아기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아줌마들이 어떤 학원에 보내면 좋고 그 학원에 또 어떤 선생님은 좋고 뭐 이런 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죠.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중국에서 주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도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도 키우고 싶어요. (사례12)

### (23) 자신감을 획득함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영어를 6개월 전부터 배우고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영어를 배우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훨씬 좋죠. (사례3)

### (24) 매스컴에서 유익한 정보를 획득함

제일 좋은 것은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요리 이름을 쳐서 검색하면 조리 방법이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정보시대니까 참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따라해도 댓글에서 평가한 것처럼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음식을 중국식으로 만들어서 먹기도하고 그래요. (사례11)

### (25) 소외감을 해결함

한국에 시집 온 우리 친구들을 모아서 친목회를 조직했지요. 아기 돌, 백일 때마다 서로 찾고 한 번 모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국생활의 적응감 등을 틀어놓고 정답도 나누고 얼마나 좋은지 물렸어요. (사례15)

### (26) 정서적 지지를 받음

우리 모임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시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풀 수 있어요. 딱 말 한마디 꺼내면 다 알아요. (사례10)

### (27) 정보를 획득함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서로 어려움 점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에 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 줘요. 그게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례10)

### (28) 문제 대처기술을 획득함

제가 따로 이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해줬거든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세심한 곳까지 신경 써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이틀에 한번씩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저한테도 고맙다고 자주 연락도 하고 그래요. (사례4)

### (29) 자기권리 찾음

모임을 조직하면서 나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국적, 학위, 돈 등을 떠나서 최소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평등하다는 것이죠. 어떤 누구든 우리의 권리를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례5)

## 6) 적응의 의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의 문화를 적응해 나가면서 최종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하는 욕구를 가진다. 즉,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의 의미는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한국에서는 사실 능력 있어도 여

자라면 잘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시부모, 동서, 뭐 이런 저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사례14)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스트레스 경험’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해 작용/상호작용전략인 ‘자기실현 욕구’와 ‘자신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함’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 3. 적응의 유형분석

근거이론의 장점 중 하나는 행동의 패턴(유형)을 제시하는 능력이다(신경림, 김미영 역, 2003).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방법은 실제로 수집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사회심리적 문제와 대처전략, 적응과정에 따른 변화 및 유형을 밝히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이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적응유형을 ‘지속노력형’, ‘불가피순응형’, ‘긍정적인내형’<sup>5)</sup>, ‘변화시도형’, ‘유동형’ 등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고 유형간에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있다. 즉, 시간경과와 특정한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형들도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결혼초기에는 순응하더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지속노력형’ 혹은 ‘변화시도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형이 명확하기보다는 혼합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17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큰 부분을 위주로 하되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시기, 경제적인 지위, 한국에서의 체류시간, 학력 및 시댁식구들과의 관계 등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된 객관적인 조건들을 분석하여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모두 결혼하기 전에 중국에서

---

5) 스트레스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유형.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현재의 남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남편과 한국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꿈과 현실이 일치하였다.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체류시간도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이었고 한국 남편은 모두 인천 혹은 서울지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다. 또한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본 연구에서 이 유형을 가진 연구 참여자 세 명 중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자이고 나머지 두 명은 각각 전문대와 대학원 졸업자였다. 시댁식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대부분 시댁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불가피순응형’과 ‘긍정적인내형’을 가진 조선족 여성들은 결혼계기부터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과 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 결혼생활에 대해 어떤 목적을 가지거나 타인의 의견에 순종하기 위해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조선족 여성들은 모두 중매를 통해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체류기간도 3년, 4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경제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긍정적인내형’ 유형인 경우에 남편은 직업을 가졌으나 다소 불안정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불가피순응형’ 조선족 여성들은 남편이 무직이거나 불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순응형’을 가진 조선족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편 혹은 시댁식구들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가진 조선족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가진다. 한 명의 대학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 외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가 컸거나 부모의 의견에 순종해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중매를 통해 현재의 한국 남편을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

편에 대한 사랑, 믿음과 존중이 더 컸기 때문에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였다.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에서 체류기간은 최소 5년이였다. 또한 대부분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의 남편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 자신도 중국어 강의 혹은 개인사업 등과 같은 일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대부분 전문대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진학계획을 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중류층 이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시댁식구들과의 갈등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과감하게 대결적인 행동을 취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꼭 세우려고만 하는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이런 특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는 ‘변화시도형’으로 분류하였다.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결혼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이혼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모두 2년으로 제일 짧은 것으로 나왔고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모두 가족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도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정의 경제상황은 크게 좋은 편은 아니다.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가족식구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갈등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을 ‘유동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함’의 적응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lt;표 3&gt;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함'의 적응유형

패러다임 / 유형		지속 노력형	불가피 순응형	긍정적 인내형	변화 시도형	유동형
인과적 조건	국제결혼 선택함	일치	상충	상충	일치	상충
현 상	스트레스 경험	작음	큼	큼	큼	작음
맥락적 조건	문화적 차이	작음	큼	작음	작음	큼
	정체성 혼란	작음	큼	작음	작음	작음
	경제적 기대와 현실 간 차이	작음	큼	작음	큼	작음
중재적 조건	자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소극적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사회적 지지	많음	적음	많음	적음	많음
작용/상호 작용 전략	자기실현 욕구	강함	약함	약함	강함	약함
	자신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약함	약함	약함	강함	약함

## V. 결론 및 제언

### 1. 기존연구와의 적응유형 비교분석

#### 1) '지속노력형'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이론에서 Khoa와 Van Deusen(1981)는 적응의 유형을 구세대 유형, 동화유형과 양 문화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중 양문화유형은 과거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선별적으로 새로운 정착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양 문화유형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즉,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문화적 차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문화적 차이를 적게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문화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것보다 상이한 문화간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과거의 문화도 유지하고 새로운 한국문화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문화유형에서 언급된 전통문화는 한 나라에 있는 하나의 민족의 문화라는 점과 '지속노력형'에서의 전통문화는 중

국문화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또 완전한 중국문화와 한국문화도 아닌 조선족문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한민족문화도 단순히 한국인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단일민족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미 새로 변형되면서 형성된 새로운 조선족 문화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점에서 양 문화적응유형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조선족문화, 중국 문화와 새로운 한국 문화라는 세 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양 문화유형과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Berry(1984)가 구분한 통합유형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즉,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주류사회인 한국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고 상호작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은 중국사람이기도 하고 한국사람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민족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한국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의 개인정체성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유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에 관련해서 Lazarus와 Launier(1978)는 인지-현상학적 입장에서 상호거래적 대처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한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와 개인과 환경사이에서 변화하는 과정이란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이는 대처 노력을 하게 하여 개인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게 하거나, 정서적 고통을 조정하여 삶과 환경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보았다(김정희, 1987). 본 연구에서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서 자신과 한국간의 관계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인지하고 한국문화 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거래적 대처모델에서 주장하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유형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또한 Frederic(1980)가 분류한 지각된 스트레스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하는 행동유형은 본 연구에서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이 경험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과 유

사하다고 본다. 특히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스트레스 대처유형에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제지향적 대처행동유형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 2) ‘불가피순응형’

‘불가피순응형’의 조선족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Lazarus(1981)의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대처에 있어서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가져오는 대처방법으로는 회피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가피순응형’ 유형의 조선족 여성들은 Frederic(1980)의 대처행동유형에서 스트레스 원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유형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Berry와 Kim(1988)은 개인의 특성, 사회의 조건, 관계 안에서 한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고 Karmela(1996)는 성이나 연령, 직업, 교육 정도, 결혼상태, 이주과정에서의 경험, 거주기간, 이주 후의 요인들, 문화적응의 유형이나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이들을 수용하는 태도와 특성,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대처 능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불가피인내형’ 조선족 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유형은 전통적인 스트레스 모델에서 스트레스와 그 결과물로서의 적응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점(장춘미, 2001), 즉, 한 특성을 가진 개인은 모든 상황에서 일관된 태도나 행동을 보인다는 관점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 3) ‘긍정적인내형’

‘긍정적인내형’ 조선족 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유형은 기존의 스트레스 모델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면, Vaux(1988)는 사회적인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의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Naidoo(1985)는 지지적인 남편이 있는 여성은 문화적응에 적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나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연구 참여자들도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과도한 사회적 지지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특성과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새로운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추구를 강조해왔지만 본 연구를 통해 과도한 사회적 지지는 새로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보여주고 이런 점에서 또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변화시도형’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Berry(1984)의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형과 유사하다. 즉, 변화시도형의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의 민족정체성과 개인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사회인 한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한다.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을 환경에 맞게 적응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통합형 문화적응 유형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변화하려고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훨씬 적은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다.

Lazarus와 Launier(1978)의 상호거래적 대처모델에서는 개인과 환경간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을 양방적이라고 보면서 이 과정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 매개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일차적과 이차적 평가가 모두 포함된 인지적인 평가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개인과 환경의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어떤 한 문화 혹은 두 문화에 대해 비판을 한다는 점에서 상호거래적 대처모델과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Frederic(1980)의 지각된 스트레스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

하는 행동유형과 유사점을 가지면서도 한국사회에서는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의 행동은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지 않는 비판을 받게 된다.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서 새로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습득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문화와 조선족 문화도 최대한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한·중 양문화 간 충돌이 생길 경우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심지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한국 문화를 비판하기도 한다. 즉,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Lazarus(1981)의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서 밝혔던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대결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 한국 사람들로부터 ‘기 센 여성’이라는 낙인을 받게 된다. 이런 연구 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 속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한국여성들로부터 불가피하게 냉대를 받게 되고 한국남성으로부터 거부와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지지를 적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자신과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변화시도형’을 가진 조선족 여성들은 변화에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강한 자기욕구의 실현을 통해 최종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 5) ‘유동형’

‘유동형’은 기존의 Lin(1982), Khoa와 VanDeusen(1981)와 Berry(1984)의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한다는 점에서 Pearlin 등(1978)의 의미통제적 행동유형과 유사점을 가진다. 즉, 긴장경험의 발생 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그 긴장경험의 의미를 통제한다.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스트레스상황을 합리화시키거나 도피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또한 Frederic(1980)이 분류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유형과 유사점을 가진다. 즉,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 회피하는 행동을 취하거

나, 스트레스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긴장상태를 통제하는 능력이 강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능력도 강하다.

특히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본 연구의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킨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다른 네 가지 유형의 조선족 여성들보다 훨씬 빨리 안정을 취하고 새로운 대처전략을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문화적응에 장기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에서 쌍방의 변화보다 환경변화에 맞춰 개인이 수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개선과 발전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이론적 함의

본 연구에서 특히 ‘긍정적인내형’ 조선족 여성들은 과도한 사회적 지지로 인해 한국생활 적응에서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유형으로 발견되었다. 이런 유형은 또한 기존 이론에서 언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선족 여성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스트레스 대처모델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가피순응형’과 ‘긍정적인내형’ 조선족 여성들은 도피, 수용 혹은 합리화시키는 등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동형’ 조선족 여성인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통제하거나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관계를 강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발생원인 및 대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의 가부장적문화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문화에 도전하여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일부 조선족 여성들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사례가 매년 증가하게 되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기존의 가부장적문화는 다양한 외국 문화와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가부장적문화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탐색을 위해서 무엇보다 새로운 국제결혼가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결혼 가족 유형별 가부장적문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가부장적문화와 현대의 가부장적문화와의 지속적인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일반 한국인 가정의 가부장적문화와 국제결혼가정의 가부장적문화간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가부장적문화의 특성을 찾아내고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존의 문화적응에서 주로 이주민들의 적응을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정도에 따라 이주문화에 동화 혹은 통합하는 정도를 강조해왔다면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여성들이 민족정체성보다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적응에 있어서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생활 적응의 각 단계에서 조선족 여성들의 적응 유형별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의 적응을 연구자의 기준 혹은 기존의 척도가 아닌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3. 유형별 실천적 적응

본 연구에서 조선족 여성들의 유형별에 따른 실천적인 적응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은 대부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시택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에게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학력과 원하는 전공에 맞게 학교를 소개해주거나 학교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조선족 여성들에게 진학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중국에서 6년, 7년 정도 간호사’하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라도 적절한 프로그램 혹은 주변 여성관련 기관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고급인력’들은 식당에서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연구 참여자는 말하고 있다. 김숙자 외(1999)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이 원하는 적응프로그램에서 27.8%는 ‘기술교육’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에서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족 여성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취업관련 자활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알맞은 직업을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하거나 공부하는 동안에는 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지역사회복지관의 자원활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노력형’ 조선족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가사일 때문에 받게 된 스트레스를 해결해준다.

‘불가피순응형’ 조선족 여성들에게 인지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인지하고 결혼생활과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줄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기대가 커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였지만 꿈과 현실 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면서 환상은 곧바로 실망으로 변화하게 되는 조선족 여성들이 있는가하면 부부갈등, 고부갈등, 동서들간의 갈등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해 후회하는 조선족 여성들도 있다.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조선족 여성들은 고립되고, 실망하고 방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기권리주장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은 삶의 주체이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불가피순응형’을 가진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은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스트레스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는 강점관점을 가지고 ‘불가피순응형’을 가진 조선족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중국어-한국어 교환 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불가피순응형’을 가진 조선족 여성들을 중국어 강사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이들로 하여금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사회활동을 통해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긍정적인내형’ 조선족 여성들에게는 부부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부부

에게 자신들의 의무, 책임과 권리를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게 자신들의 실현욕구를 명확히 하고 이런 욕구의 실현을 위해 가족들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지지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서비스대책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영역에서는 과도한 사회적 지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실제상황에 맞는 서비스대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타인의 변화를 많이 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에서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에게 도전도 중요하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에 대한 도전을 통해 주변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적지 않는 비판을 받게 되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에 대해서 성공적인 도전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변화시도형’ 유형의 조선족 여성들에게 상담을 통해 타인과의 좋은 관계형성방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은 타인과의 갈등관계를 대결적으로 해결하거나 자신보다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관계는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유지도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변화시도형’ 조선족 여성들에게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과 같은 기법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형성에 도움을 제공한다.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에게는 지역사회복지관등의 연계를 통해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한국어교실, 영어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일정기간의 학습을 통해 언어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동원하거나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에게 한국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여 한국문화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혹은 자조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에게 같은 배경을 가진 다른 조선족 여성들의 생활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에게 자신감회복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도와준다. 특히 국제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한국국적 취득이나 이혼상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결혼을 통해 부부가 함께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은 시댁식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족자원을 활용하여 ‘유동형’ 조선족 여성들의 적극적인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이들에게 상담을 실시할 필요 있다.

#### 4. 정책적 제언

첫째, 새로운 가족법과 국적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분 한국남성들이 가족법과 국적법을 악용하여 조선족 아내를 통제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건전한 가정을 만드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담낼 수 있는 가족법과 국적법의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나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2년 이내 결혼이 종결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이들을 위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법적권리를 보장한다.

둘째, 여성부 혹은 소수 취약 계층의 욕구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여성정책의 개선에 국제결혼 외국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교육 문제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어린 자녀의 맡길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연구 참여자가 많았다. 이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말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여성부에서는 이런 출산, 가사,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국제결혼 여성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응시켜 조선족 여성들에게 산모 도우미나 산후 조리사를 파견하여 출산전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미래인력연구원이 945쌍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전체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sup>6)</sup>.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연구 참여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빈곤에 처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더라도 일을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와 실태를 노동부와 같은 기관에서 파악하여 정부의 취업관련 정책 개선에 반영시켜야 한다. 정부에서는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제정·개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자에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5.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거나 이혼과 같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이혼을 하였거나 별거상태에 있는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경험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면 더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혼하였거나 별거상태에 있는 조선족 여성들의 결혼생활 적응의 의미와 유형을 찾으면 더욱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결혼생활 적응이라는 것은 조선족 여성들만의 일방적인 적응만은 아니다. 조선족 여성이 편입된 한국 시댁식구들과 자녀들의 적응도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남편, 자녀, 시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면 적응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6) <http://www.hotline21.or.kr/bbs/view.php>(여성 결혼이민자 영주요건 '2년 이상 거주'로 완화).

## 참고문헌

-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집 제2권, 62~80.
- 강해순(1999). 중·한 섭외혼인 생활의 실태와 전망. 명지대 가족생활연구학회, 제4집, 41~59.
- 김숙자, 강유진(1999). 한·중 섭외혼인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 한국남성과 중국 조선족여성과의 섭외혼인실태와 그 가족의 복지를 중심으로. 명지대 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 제4집, 61~109.
- 김인숙·우국희(2002).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제49집, 34~61.
- 김정민(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에서 사용되는 ‘호칭’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고운(2001).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한국 내 조선족 노동자의 삶과 적응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니이아 도시유키(2000). 한국으로 ‘시집 온’ 일본인 부인 -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요성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신영화(2002).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의 부부문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0집 제2권, 1~24.
- 안현정(2003). 국제결혼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연숙(2003).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이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2003년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자료집.
- 이규삼(2000).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옥(2004).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여성의 social support: 부여, 청양,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2000). “한국취업”과 중국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변화: “민족지적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학회, 제7집 제2권, 63~105.
- 인봉숙(2002). 한일 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실태 조사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가정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 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덕(2004).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03년 1월 6일. 중앙일보, 2005년 3월 31일. 통계청 2003년 자료.
- Berry, J. W.(1984). Cultural relations in plural societies: Alternatives to segregation and their socio-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N. Meller & M. Brewer(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11~29). Orlando, FL: Academic Press.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1988).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09.
- Ben-David, A. & Lavee, Y.(1994). Migration and marital distress: The case

- of Soviet immigran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1(3/4): 133~146.
- Frederie(1980). Psychosocial Assets of Parents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Gutmann, D. L.(1964). *An exploration of ego configurations in middle and later life*. New York: Athrton.
- Khoa, L. X. & Van Duesen, J. M.(1981). Social and Cultural customs: Their contribution to resettlement. *Journal of Refugee Resettlement*, 1: 48~51.
- Lazarus, R. S.(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 Eisdorfer, D. Cohen, A. Kleinman & P. Maxim(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ology*(pp.177~214). New York: S. P. Medical & Scientific Book.
- Lazarus, R. S. & Launier, R.(1978). Stress-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A. Pervin & M. Lewis(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237~328). New York: Plenum.
- Lin, K. M., Masuda, M. & Tazuma, L.(1982).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ese refugees. Part III. Case studies in clinic and field: Adaptive and maladaptive. *The Psychiatric Journal of University of Ottawa*, 7: 173~183.
- Morse, Janice M. & Field, Peggy Anne(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질적간호연구방법. 신경림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1997.
- Naidoo, J.(1985).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adjustment of South Asian women in Canada. In I. R. Langunes and Y. H. Poortinga (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 Lisse. The Netheerlands: Swets & Zeitlinger.
- Pearlin, L. 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ita Sara Schreiber, Phyllis Noerager Stern(2003).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신경림·김미영 공역. 서울:

현문사. 2003.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Vaux, A.(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Praega Publishers.

[http://www.asianwed.co.kr/process\\_C01.asp](http://www.asianwed.co.kr/process_C01.asp).(2005.3)

<http://www.hotline21.or.kr/bbs/view.php>.(2006.4)

## **A Qualitative Study on Adjustment and the Pattern of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Jinhai cui\*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7 Korean-Chinese women who have been married to Korean men and living in Korea for more than one year. This study employed the grounded theory method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8).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observ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Data analysis generated 74 concepts, 21 sub categories, and 11 categories. In axial coding, a causal condition related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s emerged from the data, which was 'the cho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according to the paradigm model. The central phenomenon as reported by the participants was 'experiencing stresses'. The contextual conditions that corresponded to the central phenomenon of stress were 'cultural differences', 'identity confusion' and 'disparities between economic expectations and the reality.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for coping and adaptation were 'need for self-realization' and 'modification of expectations of marriage and self-perception or self-identity'. The intervening conditions affecting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life circumstances that influence her self-realization', 'capacity to cope with stress' and 'level of social support'. The consequence of coping and adaptation was 'developing the ownership of her life'.

---

\* Baekseok College of Cultural Studies, lecturer

Selective coding revealed five types of adaptation to marriage among the Korean-Chinese women participant. The five types were drawn from analysis of not only the category's property and dimensions but also the objective conditions such as motive for marriage, economic status, the length of stay in Korea, scholarship,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er in-laws and so no. The five types are as follows: 'striving for change in self', 'resignation to accept the reality', 'appreciation of positives', 'continuous effort to change life environments' and 'pragmatic adaptation'.

The findings of study will help develop social welfare services that support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ir adjustment in Korea.

**Key words:** International Marriage, Korean men, Korean-Chinese women, Adjustment of Life in Korea, Qualitative Study, Grounded Theory